

# ‘음란(외설)’ 시비의 이면: 『채털리부인의 연인』(판례)의 번역과 젠더/섹슈얼리티/계급 정치(1945-1979)\*

박지영\*\*

## 차례

1. 『채털리부인의 연인』 번역의 한국적 특수성- ‘『채털리부인의 연인』이 판금 조치되지 않은 이유
2. ‘콘스탄스’란 기호의 부재- ‘번역’될 수 없는 여성의 에로티시즘과 풍문화된 번역
3. 『채털리부인의 연인』 재판 판례의 번역- ‘음란(외설)’ 시비의 젠더/섹슈얼리티/계급 정치
  - 3.1. 외설죄 적용의 정치사회적 토대와 기준
  - 3.2. ‘외설(음란)’ 시비의 젠더/섹슈얼리티/계급 정치: 『반노』 사건의 경우
4. 결론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채털리부인의 연인』과 음란죄 재판의 대표적 판례인 이 텍스트를 대상으로 수행된 서구 및 일본의 음란죄 재판 판례의 번역을 통해서 해방 이후 70년대까지 수행된 불온/외설 담론의 젠더/섹슈얼리티/계급 정치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서구, 특히 일본에서 음란죄로 번역자와 출판인이 유죄판결을 받았던 예와 달리, 우리의 경우는 이 텍스트가 출판 금지 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데 문제의식을 착안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러한 상황은 당대 검열 상황이 진보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냉전 체제 하 경직된 정치 검열 상황과 서구 고전 텍스트를 읽히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A2A01011747)

\*\* 성균관대학교 시간강사

려는 당국의 독서 정책에서 나온 결과였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이 텍스트가 작가의 의도대로 제대로 번역되지 않고 이미 유부녀의 불륜을 미화한 음란한 외설서로 풍문으로 인식된 까닭에 굳이 통제할 필요성을 못 느낀 것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텍스트에 대한 서구와 일본의 음란죄 관련 판례는 한국의 음란죄에 대한 인식은 물론 실제 재판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 결과 음란죄 대상 텍스트였던 소설 『반노』는 무죄선고를 받기에 이른다. 그러나 『채털리부인의 연인』에서 콘스탄스의 욕망이 제대로 가치있게 번역되지 못했던 것처럼, 검열과의 대대적인 싸움을 벌였던 『반노』 텍스트와 재판 과정에서, 여성의 성적 주체성은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되었다. 이 모두 오랫동안 에로티즘에 관한 생산적인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탈식민 국가, 한국의 보수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또한 여기에는 개발독재 체제 하 통치자들의 위계화된 계급, 젠더/섹슈얼리티, 가부장제적 남성 중심주의 등 전근대적인 사회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핵심어 : 젠더, 섹슈얼리티, 계급, 정치, 번역, 채털리부인의 연인, D.H. 로렌스, 콘스탄스, 여성, 욕망, 성적 주체성, 검열, 불온, 외설(음란), 음란죄, 포르노그래피, 에로티즘, 가부장제, 개발독재, 핵가족제도.

"이 소설이 당신의 부인과 아이들에 의해 읽혀도 좋겠습니까?" 1)

"미성년자들이 위 소설과 같은 음란한 내용의 책을 본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보았나요." 2)

- 
- 1) 이는 1960년 10월 20일 진행된 『채털리부인의 연인』 음란죄에 관한 재판에서 검찰이 한 질문이다. 리처드 호가트, 『채털리 부인 재판』, 『채털리-Lady Chatterley』, 피에르 비투 편, 박혜숙 역, 이룸, 2003, 160쪽.
  - 2) 이는 장정일의 『내게 거짓말을 해봐』에 관련된 재판에서 검사가 한 질문이다. 강금실, 『변론기』, 『장정일, 화두, 혹은 코드』, 장정일 외, 행복한 책읽기, 2001.

## 1. 『채털리부인의 연인』 번역의 한국적 특수성

—『채털리부인의 연인』이 판금 조치되지 않은 이유

1960년 10월 『동아일보』에는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실린다. “9인의 신사와 3인의 숙녀가 24일 「런던」의 「베일리」 법정 내에 있는 아담한 1실에서 ‘섹스와 색정의 방자한 모습’으로 충만되어 있다는 말을 들은 바 있는 소설 『채털리부인의 연인』의 숙독을 마쳤다. 이들은 영국귀부인과 성불구자인 그의 남편의 수렵장 관리인의 연정을 그린 D.H. 로렌스의 말쑥 많은 소설 『채털리부인의 연인』이 32년간 금매서적으로 취급받아온 후 이제는 영국 대중 앞으로 삭제됨이 없이 나가도 될 것인가 어떤가를 결정할 배심원들이다.”<sup>3)</sup>

이 기사는 펍킨 출판사가 1928년 발간된 이래 그간 출간금지되었던 무삭제본의 출간을 결정하자, 1960년 10월 20일 영국 검찰이 『채털리부인의 연인』을 음란죄로 규정하고 출판금지 처분을 요청한 재판 과정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이후 이 매체는 “배심원들은 검열을 받지 않은 D.H. 로렌스의 소설 채털리 부인의 사랑이 음외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영국에서 이 책이 간행될 길이 열렸다.(런던 AP동화)”<sup>4)</sup>는 소식도 전한다.

우리의 경우, 이 시기가 4·19 혁명 이후 잠시 동안 검열의 칼날이 무디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부장제적인 인식이 팽배했던 1950년대 상황<sup>5)</sup>과 비교할 때 외설 텍스트와 관련된 재판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전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 기사가 당대 검열 체제가 이완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섹스와 색정의 방자한 모습”이라든가, 이 이야기를 그쳐 “영국 귀부인과 성불구자인 남편의 수렵장

3) 「남녀12인이 소설을 심사, 차타레부인의 연인, 『동아일보』, 1960.10.26.

4) 「차타레부인의 사랑 영서 간행허용판결, 『동아일보』, 1960.11.04.

5)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봉범, 「1950년대 문화 재편과 검열, 『한국문학연구』

34, 동국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8 7-49쪽 참조.

관리인의 연정”으로 치부한 당대의 통념을 여과없이 드러내며, 매우 센세이셔널한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이 사건에 대해 한국 매체는 지속적인 관심으로 보이며, 이 텍스트의 출판과 관련된 세계 여러 나라의 상황까지도 관심을 갖고 보도한다.<sup>6)</sup>

사실 우리에게 통상적으로 D.H. 로렌스의 마지막 작품 『채털리부인의 연인』은 그 텍스트 내용의 파격성보다 이 문학적 텍스트를 음란죄로 규정하고 그 유죄여부를 근엄한 재판정에서 다루었다는 점에서 유명하다. 한국에서 『채털리부인의 연인』에 대해 갖는 집요한 관심은 이 사건 이전에도 존재했었다. 그 중 하나가 일본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센세이셔널한 사건, 1957년 『채털리부인의 연인』 번역에 가해진 음란죄 적용 재판이다. “1951년 동경지방 검찰청은 번역자 이토 세이(伊藤整)와 출판인 오야마 히소지로(小山久次郎)를 공연외설죄로 기소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전하며, “일본의 최고 재판소는 13일 일어로 번역된 D. H. 로렌스 작 차타레이 부인의 연인이 음란한 것이라는 판정을 내렸다<sup>7)</sup>”고 한다. 상대적으로 거리감이 있는 서구의 판례도 아니고, 가까운 이웃이자, 과거 식민지 제국이었던 일본의 판례는 당대 대중들에게 썩 흥미로운 예시였던 것이다. 특히 우리처럼 가부장제적인 인식이 강한 동양 국가의 판결은 이후 여러 텍스트를 통해서도 재생산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판례가 향후 한국의 외설 관련 검열 법

6) 일본, 영국 이외에도 인도의 경우는, 이 텍스트가 이념서적과 함께 발매금지되었다고 전한다. 「인 정부 공산계 서적 수입 금지」, 『경향신문』, 1970.4.14. 이탈리아의 경우는 영화 검열에 관한 소식을 전한다. 「로렌스 소설 영화화 누드장면 많아 압수」, 『경향신문』, 1970.5.9.

7) “출판업자 및 역자 씨는 각각 25만원(694불) 및 십만원(278불)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 이 책을 예외한 재판문제는 과거 6년 동안 지속되어 왔었다”고 전하면서, “최고재판소 장관 전중경태판씨는 언도 공판에서 “로렌스”의 작품이 “음란하다”고 선언함으로써 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승인하였다”고 전한다. 그러나 “차타레이”, “부인”의 연인은 1950년 4월에 출판된 히트로서 불과 수개월동안에 15만부가 매진되었었다”고 한다. 「“차타레부인의 연인”에 유죄판결 출판업자와 역자에게 벌금형」(「동경발AP 합동통신」), 『경향신문』, 1957.3.16.

안 및 재판의 주요 참조점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승헌 변호사가 말하고 있듯, “우리 사법부가 애지중지하는 ‘음란’ 개념은 1951년 5월 10일 『선데이 오라』 기사 건에 관한 판결 및 이를 그대로 답습·채택한 1957년 3월 13일 『채털리부인의 연인』 역서 출판 사건에 관한 판결”의 용례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sup>8)</sup>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은 정작 우리의 경우 실제로는 「채털리 부인의 연인」에 대한 판금 조치가 수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sup>9)</sup> 김정매의 서지학적 연구<sup>10)</sup>에 의하면 『채털리부인의 연인』은 1952년에 조규동에 의해 일본어 중역으로 최초로 번역된 이후 1970년대까지 7명의 번역가가 이 텍스트의 번역에 참여하여 출판된다. 심지어 이는 저자인 D.H. 로렌스의 텍스트 중 가장 많이 번역된 것이라고 한다.<sup>11)</sup>

로렌스가 세 번의 개작과정을 거쳤던 이 텍스트<sup>12)</sup>의 번역은 초기에는 주로 최종본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그 성적 표현의 수위가 낮았던 *The First Lady's Chatterly*의 중역본이었다. <sup>13)</sup> 초기 번역판 제목의 경우, “정부(情夫)”라는 의미가 강한 단어인 “lover”를, “연인”보다 “사랑”으로 더 많이 번역한 것 역시 검열이나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를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완결판본인 세 번째 판본을 원본 텍스트로 선정한 것은 1984년 학원사에서 나온 이동선의 번역판에 와서이다. 영국의 경우 1960년대 초반에 허락되었던 완결판 출판이, 우리의 경우 부실한 원본 확정

8) 한승헌, 「『즐거운 사라』사건-‘즐거운 사라’의 즐겁지 않은 수난, 『권력과 필화』, 문학동네, 2013, 95쪽; 송광준, 「음란물의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75, 174-175쪽; 권명아, 『음란과 혁명, 풍기문란의 계보와 정념의 정치학』, 책세상, 2013, 319쪽.

9) 한상범, 「문학작품과 외설 법에서 본 음란의 정의 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상)」, 『경향신문』, 1964.7.16.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도 동저작이 번역출판 반포되었고 또 영화로서도 수입되었는데 영화수입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었으나 소설이 번역출판되었을 때에는 당국의 관용 탓인지 또는 과문의 탓인지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말을 못들었다”고 전한다.

10) 김정매, 「연도별 논저 목록-번역」, 『한국에서의 로렌스 수용-서지학적 연구 1930-1987』, 한신문화사, 1989 참조.

11) 그 내용은 표로 제시한다.

과정 혹은 자기검열로 인해 우여곡절 끝에 1980년대가 되어서야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번역된 것은 이미 이 텍스트가 고전의 반열에 오른 작품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대중의 관심을 받는 텍스트였기 때문이기도 하다.<sup>14)</sup>

제목	역자	출판사	출판년도
차타레이 부인의 사랑	조규동	세종문화사	1952
차타레이 부인의 사랑	조규동	동명문화사	1955
차털리 부인의 연인	문일영,오정환	동방사	1964
채터레이 부인의 사랑	양병탁	정음사	1965
차털리 부인의 사랑	오정환	문우	1966
차털리 부인의 연인	문일영,오정환	삼신서적	1968
차털리 부인의 사랑	오정환	미림출판사	1972
차타레 부인의 사랑	정재춘	세종문화사	1973
채털리 부인의 사랑	이종구	주부생활사	1974
채털리 부인의 사랑	유영	동서문화사	1975
채털리 부인의 사랑	양병탁	대양서관	1976
채털리 부인의 사랑	이신향	신문문화사	1976
채털리 부인의 연인	이종구	평범사	1978

- 12) 이 텍스트는 이탈리아에서 창작되었는데, 첫째 것은 1926년 10월부터 1927년 3월 경에 창작되어 1944년 미국에서 『초판 채털리부인』이란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제2고는 1927년 봄부터 여름까지 창작되어 『존 토마스와 레이디 제인』이란 제목으로 1972년 영어로 출간되었다. 최종고는 1927년말부터 1928년 1월까지 창작되어 1928년 플로렌스에서 출간된다. V1 *The First La's Chatterley* (1944; London: Heinemann, 1972). V2 *John Thomas and La's Jane* (First pub. in Italian 1954; London: Heinemann, 1972). V3 *La's, Chatterley's Lover* (1928; The Hague: Heinemann, 1956). (奥西, 晃, 「로렌스小説の終局: 『チャタレイ夫人の恋人』考」, 大阪女子大学英文学科 編, 『女子大文学. 外国文学篇』33. 1981, 3쪽. 문우상, 『『채털리부인의 사랑』에 관하여』, 『D.H. 로렌스』, 한국영어영문학학회 편, 민음사, 1979, 256쪽)
- 13) 로렌스는 이 소설을 세 번이나 고쳐 썼다. 소설 구조와 인물, 특히 산지기의 모델은 바꾸면서, 코니에 대한 묘사는 세 판본 모두 비슷하고, 그녀의 남편은 소설이 개작될 때마다, 자신이 부리는 노동자들을 경멸하는 점점 더 끔찍한 인물로 묘사된다. 판본이 거듭될수록 산지기와와의 애정행위는 횡수도 늘어나고 점점 더 노골적으로 섬세하게 묘사된다. (피에르 바투 편, 앞의 책, 131-132쪽 참조)
- 14) 이 텍스트에 대한 관심은 해외 베스트셀러 소개를 통해서 드러난다. 1972년 『경향신문』에서 『채털리부인의 연인』은 ‘홀러간 만인의 사조 베스트셀러’ 중 하나였다. 실제 영국에서도 이 텍스트는 무죄 판결 이후 약 1년 간 삼백오십만 부가 팔렸다고 전한다. (『삼백오십만부의 봄』, 『동아일보』, 1962.1.13.) 일본에서도 패전 후 5년만인 1950년 4월 일역본이 소산서점에서 발행된 후, 2개월 만에 상하 합해서 15만

그런데 이렇게 『채털리부인의 연인』이 번역이나 출판이 제재를 받지 않았던 우리의 상황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나나』를 수입금지 조치했던 식민지 시대에 비해 검열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러나 그렇다고 보기에 해방 이후 한국의 음란물 통제 사건은 또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외설 텍스트로 법적 제재가 가해진 문학 텍스트는 1964년 박용구의 『경향신문』 연재소설 『계룡산』, 1969년 염재만의 『반노』 등 창작 텍스트이다. 외국도서의 경우는 1957년에 제정된 외국서적인쇄물추천기준에 의하여 “음란외설한 내용으로서 미풍양속과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금한다고 정하고 있<sup>15)</sup>지만 실제로 단속 대상이 되고 법적 제재가 가해진 것은 주로 일본서적과 잡지들이었다.<sup>16)</sup>

외설 관련하여 번역 출판 금지 조치가 내려진 예도 대개 일본 서적이었다.<sup>17)</sup> 반면 1965년 실시된 외설서적 단속에 걸린 텍스트 목록을 보아

---

부를 팔아 단연 국내의 신간군을 누르고 베스트셀러의 하나로 군림하게 되었다고 전한다.(『홀러간 만인의 사조 베스트셀러』(21)- 로렌스 채털리부인의 사랑, 『경향신문』, 1973.7.28.) 미국 역시 1959년 이 텍스트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한다.(『美國(미국) 베스트셀러 차타레夫人(부인)의 사랑登場(등장)』, 『동아일보』, 1959.06.17.)

15) 『추천기준결정 외국서적인쇄물』, 『동아일보』, 1957.9.3.

16) 50년대 당국에 압수된 도서는 『자유주의의 몰락』, 『맑스주의』, 『맑스주의와 실존철학』, 『아세아사회와 아세아민족』, 『맑스 가치론의 연구』, 『소비에트의 힘』, 『사회주의에의 길』, 『사회과학인식론』, 『사회사상사10강』,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현대일본』, 『경제학입문사전』, 『니힐리즘과 유품사관』, 『사회사상개론』, 『사회사상과 현대일본』, 『사회정책』, 『개조』(잡지). 『조선의 경제』, 『헤겔철학이론』, 『사회주의 정치학』 등이다. 모두 일본어 원명의 도서라 한다.(『검열관계직원도 대상에 불운서적단속의 수사범위확대』, 『동아일보』, 1957.7.25.) 일본불운서적의 압수는 1959년에도 실시된다.(『불운한 일본책 철저압수 지시』, 『경향신문』, 1959.2.22.) 불운에 대한 단속이 일본 간행물에 집중되었던 사실은 식민지 시기 좌파적 성향의 텍스트가 주로 일본어 텍스트였다는 사실에 기인한다.(『민족해방의 별』, 『마르크스의 정치사상』 등 일본 발행 도서의 압수조치(『동아일보』, 1965.3.1.)를 보면 알 수 있다. 일본서적이 외설도서로 주요 단속 대상이 된 것은 사상서적 단속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며 풍속 검열이 본격화된 1960년대부터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봉범, 『불운과 외설 -1960년대 문학예술의 존재방식』, 『泮橋語文研究』 36, 번교어문학회, 2014, 447쪽 참조.

도 외국 번역 텍스트는 찾아보기 힘들다.<sup>18)</sup> 다만 노벨문학상 수상작품 미하일 솔로호프작 「고요한 돈강」의 국내 출판 및 번역 출판을 일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다.<sup>19)</sup> 검열 당국이 외국 도서 번역에 법률적인 제재를 가한 것은 사회주의 리얼리즘 소설이었다. 이들에게는 외설적인 문학 서적보다는 이념적 성향의 문학 텍스트가 더 위협적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물론 검열 당국이 특별히 이 도서의 번역을 신속하게 금지했던 것은, 이 소설이 당대 한국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노벨문학상 수상 작품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외설 시비가 분분했던 『나나』, 『보봐리 부인』, 『북회귀선』을 비롯하여 『채털리부인의 연인』까지는 다만 그 외설 시비 자체만 보도할 뿐, 실제로는 단 한 종도 번역, 출판 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풍기문란 통제와 관련이 깊은 에밀 졸라의 『나나』 번역에 대한 연구에서 권명어는 일제 시대 식민지 조선에서는 35년을 전후로 수입 금지 대상이었던 『나나』 번역이 해방 이후 재개된 것은 물론 세계문학전집 발간 붐에 힘입은 바 있지만, 작가의 좌파적 성향의 텍스트를 번역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sup>20)</sup> 이러한 논리 역시 음미할 만한 것이다. 이는

17) 월간지 『인기』의 편집자가 1969년 일본잡지 『주간여성』에 게재된 수기 「동경의 밤 25시」를 발췌·번역하여 6회에 걸쳐 연재하는데 이 가운데 1969년 4월호에 실린 내용이 음란하다고 하여 문공부는 1970년 8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등록청은 1976년 7월 28일 일본의 저명한 문학상인 「아쿠타가와상」(芥川賞) 76년도 수상작 「끝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촌상용작)의 국내번역권에 대한 배포금지 처분을 내리고 이를 출판한 진암사 및 대중출판의 등록취소를 서울시에 지시한다. 문공부는 이 책이 문공부에 납본도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내용이 극히 음란하고 퇴폐적이어서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올게천상을 받은 「끝없이...」 국내번역권 배포를 금지」, 『동아일보』, 1976.7.30.)

18) 방인근의 『철요남여정담』, 『벌레먹은 청춘』(평화문화사), 「비틀거리는 밤」(문교출판사) 등 11명의 저작자와 7개 출판사 대표 등을 형법 243조와 244조에 입각해 입건한다. 단속된 대상은 서울 시내에만 20여 종, 그 총수는 5천여권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다. 그 중 5백권을 압수한다. (「외설서적 일제단속」, 『동아일보』, 1965.5.12.)

19) 「번역출판금지-「고요한 돈강」, 『조선일보』, 1965.11.6.



해방 직후에는 풍기문란의 통제가 좌파적 성향의 통제와는 다른 기준에서 수행된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반면 『채털리부인의 연인』 재판 관련 판례는 해방 후 한국에서 벌어진 외설 관련 재판에서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 이러한 점은 우리의 경우도 이 재판들이 계급과 젠더 인식의 역학적 관계에서 파생한 문제라는 사실을 추측하게 한다. 이러한 점은 저자인 로렌스의 텍스트, 혹은 『채털리부인의 연인』 재판 담론이 해방 이후 어떠한 방식으로 번역되었는가를 살펴보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 2. ‘콘스턴스’란 기호의 부재- ‘번역’될 수 없는 여성의 에로티시즘과 풍문화된 번역

로렌스는 이성적 사고보다는 투쟁적이고 예언적인 영감의 소설가이다. 계급투쟁마저 권력과 연관된 것이라고 부정하는 로렌스의 세계관은 그의 부인인 프리다가 프로이트 신봉자, 자유로운 사랑과 여성의 성적 해방, 모권사회에 기초한 사회구조의 혁명을 부르짖는 급진적 정치의식의 소유자였던 것과 관련이 깊다.<sup>20)</sup> 그 영향이었는지 『채털리부인의 연인』의 주인공 콘스턴스는 어머니가 페이비언 협회 회원이었고, 그녀와 언니 역시 세계인이자 지방 사람으로서 순수한 사회주의적 이상과 더불어 예술의 세계주의적 지방성을 품고 있<sup>21)</sup>는 인물로 그려진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그를 페미니스트로 칭하기는 어렵다. 초기 로렌스는 1910-14년에 걸쳐 일어난 영국의 사회운동에 빠져 있었다. 쇼와 시드니 웹 부부가 주도한 페이비언주의, 로이드 조지와 관련된 자유개혁주의, 팽크허스트가 주도한 페미니즘, 웨스의 과학적 유토피아니즘, 아

20) 권명아, 앞의 책, 155-167쪽.

21) 피에르 비투, 『세번이나 다시 씌어진』, 앞의 책, 19쪽, 31쪽, 33쪽, 44쪽, 63쪽.

22) D.H. 로렌스, 『채털리 부인의 연인』, 유혜영 역, 책읽는수요일, 2016. 11쪽.

서 헨더슨의 노동운동, 생디칼니즘과 혁명적 사회주의 등 지성인들의 사회운동을 열렬히 성원하였다. 특히 페미니즘 운동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는데. 전후 폐허 속에 여러 이념들에 대한 회의 의식이 극단에 이르고 원시적인 성의 세계를 지향하게 되면서 이러한 그의 인식은 점차 페미니즘과도 멀어져 간다.<sup>2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차별적이라 의심받을 만한 진술의 장본인이기도 한 작가는 역설적이게도 여성의 삶을 그 누구보다 깊이 헤아렸다고 평가 받”<sup>24)</sup>기도 한다. 그러나 케이트 밀렛이 『성 정치학』에서 그를 대표적인 남근주의자로 혹평한 것처럼 『채털리부인의 연인』에서는 분명 레즈비언 혐오증 등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이러한 점을 부정할 수 없게 한다.<sup>25)</sup> 그리하여 로렌스가 비록 이 텍스트의 제목을 산지기 멜로즈가 아니라 「채털리부인」으로 한 까닭이나, 남편인 클리포드에게 휘둘리지 않는 자아가 강한 여성의 형상이라는 점, 귀족 남성과 하층민 여성의 결합이 아니라

23)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정석, 「로렌스와 페미니즘」, 21세기영어영문학회, 『영어영문학21』10, 1995 참조.

24) 강미숙, 「D.H. 로렌스와 페미니즘-페미니즘 비평사의 변전을 중심으로」, 『D.H. 로렌스 연구』 11, 한국로렌스학회, 2003, 189쪽.

25) 이 텍스트를 분석한 케이트 밀렛은 결코 로렌스가 극복하지 못했던 남근중심주의를 비판한다. 또한 일견 귀족 여성인 코니가 남자 하인 멜러즈와의 관계를 통해서 기왕의 보수적 성적/계급적 관계를 역전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멜러즈가 제국을 전복하기는커녕 백인 여성을 성적으로 정복하는 것을 원대한 야망으로 생각하며 제국의 질서를 그대로 답습한다고 통렬하게 비판한다. 그러면서 로렌스에게 중요했던 성정치학은 남성들 사이의 다양한 공적 정치학들보다 더 확실한 정치학이었다고 말하고, 그의 진보적 정치적 의도가 결국은 이러한 인식 때문에 패배했다고 결론 맺는다. 케이트 밀렛, 『성 정치학』, 김전유경 역, 이후, 2009, 3부 5장, 474-475, 477쪽 참조) 이렇게 위계화된 로렌스의 성적 인식은 1976년 김병철에 의해서 번역된 로렌스의 에세이 『성과 문학』에서도 잘 드러나는 바이다. 그는 여기서 「수탈형 여성과 압탈형 남성」이란 글을 통해 당대 여성의 남성화, 문맥상의 식적 성장에 대해 논하고 있다. 물론 이 장에서는 “그녀들의 기백은 남성적인 것에 있어서는 남성을 능가한다”고 그 의미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그 사상이 기초가 무르고 단지 태도에 불과해 그녀들은 여성성을 강조하는 시대와 불화하여 불행해질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D.H. 로렌스, 『성과 문학』, 김병철 역, 정음사, 1976, 82-84쪽 참조.)

그 역을 통해 계급이 미처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산다고 해도, 그에게도 역시 남녀의 위계화된 성적 구분이 존재한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게 한다.

그러나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이 텍스트의 중요한 핵심이 기혼인 귀족 여성의 성적인 자각, 에로티시즘이라는 점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이 텍스트는 당대 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젠더/섹슈얼리티 담론과 계급적 인식이라는 주요 모순이 요동치는 장소였다. 바로 이 점에서 이 텍스트와 이 텍스트를 둘러싼 콘텍스트에 대한 논란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 대개의 로렌스 번역 텍스트에서는 이러한 점이 제대로 번역되지 못했다. 이는 그간 이 재판을 바라보았던 시각 중에서도 로렌스의 작품 세계를 통칭하던 일반적인 통념, 즉 그가 남녀 간의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추구한 작가라는 점만이 부각되어 상당히 많은 텍스트에서 논의되고 있다.

오히려 그나마 그의 이러한 세계관이 부각된 것은 식민지 시대이다. 로렌스 수용사를 연구한 김정매에 의하면 조선에 소개된 최초의 로렌스 관련 텍스트는 이하운이 1930년 11월30일자 『동아일보』에 「현대시인연구-영국편」이다. 이후에 김영석, 한혹구, 최재서, 최명익 등에 의해 로렌스가 소개된다.<sup>26)</sup> 주로 프로문학이 그 빛을 잃고, 전향의 문제가 대두하는 등, 문학 장에서 주체의 내면이 중시되었던 30년대 중후반, 이러한 상황에서 로렌스는 신심리주의<sup>27)</sup> 혹은 개별자로서의 인간에 대한 발견이라는 맥락

26) 본격적으로 로렌스를 소개한 사람은 한혹구이다. 그는 1935년 3월 14일-15일자에 『동아일보』에서 로렌스의 생애와 사상을 논했다. 최재서 역시 35년 『조선일보』에 로렌스의 생애와 예술을 총체적으로 소개하고 김영석은 35년 7월 31일부터 8월 2일에 「영국 신심리주의문학 소고: D.H. 로렌스」, 1936년 8-9월 『신동아』에 「D.H. 로렌스론」을 발표했다. 최정익은 「D.H. 로렌스의 ‘성과 자의식」을 1937년 4월에 『단충』에 실는다. 김광섭은 1938년 2월 1일부터 3일까지 3회에 걸쳐서 「빈한으로 일관한 로렌스의 일생-그의 인간과 사회와 예술성」을 싣고, 김영석은 1940년에 『조광』에 「로렌스의 작품과 사상-10주년기에 제하야」란 제목으로 로렌스를 다시 소개한다. (김정매, 앞의 글, 1-9쪽)

27) 특히 김영석의 경우는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은 로렌스의 면모를 설명하고 있었다.

에서 차차 소개되기 시작한다.<sup>28)</sup> 특히 최재서의 「D.H. 로렌스론-그 생애와 예술」, 최정익의 「D. H. 로렌스의 ‘성과 자의식」<sup>29)</sup>은 로렌스가 성(性)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와 그 의미를 비교적 상세하게 논하고 있다. 이 두 논의는 로렌스가 추구했던 세계, 즉 반근대주의, 반이성주의의 맥락을 파악한 결과이다. 로렌스의 유토피아를 개인주의적 차원으로 파악한 이 두 논문은 비록 소개차원이긴 했지만, 로렌스의 철학과 문학세계가 “새로운 사회 건설”의 갈망이란 차원에서는 해방 이후보다 오히려 더 심도깊게 논의되었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로렌스 사상의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최정익은 결론에서 “이러한 신비적 유토피아주의에 근거를 가진 개인주의가 로렌스가 의도한 것처럼 세계 개조의 유일한 지침이 될 수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한다. “성만으로 새로운 욕망의 본원을 구체화시키기에는 인간의 정신적 의식은 너무나 강렬한 능동력을 가지고 있”<sup>30)</sup>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비록 모더니즘을 추구하는 『단층』 동인들이지만, 식민지 지식인이었던 최정익은, 로렌스의 아나키한 반문명주의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탈식민’이라는 공동체적 유토피아만을 간절하게 꿈꿀 수밖에 없었던, 식민지 시대 피식민지 지식인의 위치에서 나온 결론이라고 볼 수 있다.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영석, 「영국신심리주의문학소고(2)」, 『동아일보』, 1935.7.23; 이정민, 「한국의 프로이트 이론 수용 양상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16, 65쪽; 오주리, 「1930년대 후반 영국 신심리주의(新心理主義)의 사랑 담론 수용 연구 -최정익(崔正翊)의 「D. H. 로렌스의 ‘성(性)과 자의식(自意識)」을 중심으로」, 『比較文學』67, 2015, 146-147쪽)

28) 식민지 시기 로렌스 수용에 관해서는 오주리의 글에 잘 정리되어 있다. (오주리, 위의 글, II-2장 참조)

29) 이 글에 주목한 논의로는 오주리, 위의 글 참조. 최재서는 로렌스가 성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성의 심연보다도 더욱 깊은 인간적 상호관계”라는 점, 그리고 그가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의 핵심이고 새 시대의 열쇠”라는 점을 잘 설명하고 있다. 최정익도 전후 로렌스가 근대의 이성중심주의가 오히려 낙원을 상실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이를 복원시키기 위해, 인간의 순일한 성적인 결합이 가능했던 아담과 이브의 시대적 정신을 추구했다고 바라보고 있다.

30) 최정익, 위의 글, 240쪽.

이혜령은 식민지 시대 검열과 서사에 대해 연구하면서 이 시대는 사회주의자를 의미하는 ‘아카’(あか,赤)가 되는 것보다, 성적 쾌락의 탐닉을 의미하는 ‘핑크’, 모모이로(桃色)가 되는 것이, 아니 더 적확하게는 핑크의 삶을 그 자체로 의미화하고 정당화하는 표현과 서사의 창출은 더욱 어려웠다고 하며, 식민지에서 에로티즘은 불가능했던 것이라고 한다. 더 나아가 성적 표현은 민족주의적 대의나 식민지적 근대의 규범의 심판이나 징벌을 수반할 때만 서사화될 수 있었다고 한다.<sup>31)</sup> 이러한 점은 당대 지식인들이 로렌스의 성적 서사를 왜 받아들이기 어려웠나를 보여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민지 시대 로렌스의 작품 소개는 파편적으로 이루어졌고, 제대로 번역된 텍스트는 거의 드물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일본에서도 35년이나 되어서야 이 텍스트 번역본이 무삭제판이 아니라 수정본을 원서로 하여, 이토 세이(伊藤整)의 번역으로 健文社에서 출간되었기 때문이다.<sup>32)</sup> 이후 에밀 졸라의 『나나』가 풍기문란 단속에 걸려 수입이 금지되었던 것처럼<sup>33)</sup>, 1936년 전후로 풍속 검열이 강화되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조선에서는 이 텍스트를 구입해서 보기 어려웠으리라 판단할 수 있다.

일본에서 서구로 지식의 제국이 바뀌고, 지식 장의 사상적 주도권을 놓고 수행되는 권력 정치 행위가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탓인지, 해방 이후에도 개인의 내면적 욕망에 관심을 기울였던 로렌스에 대한 탐색은 지연되

3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혜령, 「식민지 섹슈얼리티와 검열 -“도색(桃色)”과 “적색”, 두 가지 레드 문화의 식민지적 정체성」, 『동방학지』164, 2013 참조.

32) 로렌스에 대한 번역 서지를 일본국회도서관에서 검색해 보면, 『戀する女』(伊藤/整 譯, 原/百代 譯, 三笠書房, 1900)에 검색되어 일본에서는 로렌스의 텍스트가 비교적 일찍 번역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면 『체털리부인의 연인』은 1935년에 번역된 판본이 검색되는데, 이를 보면 일본에서도 이 텍스트가 상대적으로 늦게 번역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로렌스, 『チャタレイ夫人の戀人』, 伊藤整 譯, 健文社, 1935; 로렌스, 『チャタレイ夫人の戀人』, 伊藤整 譯, 三笠書房 1936. 50년대에는 伊藤 整 譯, 『ロレンス選集: チャタレイ夫人の戀人』, 小山書店 1950, 神西穰 譯 『チャタレイ夫人の戀人』, 作品社 1953, 原 百代 譯, 『チャタレイ夫人の戀人』, 啓明社 1953, 飯島淳秀 譯, 『チャタレイ夫人の戀人』, 三笠書房, 1955 등이 일본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검색된다. ([www.ndl.go.jp](http://www.ndl.go.jp))

33) 『나나』 번역에 대한 연구로는 권명아, 앞의 책, 151-184쪽.

어 비교적 늦게 시작된다. 사상 서적의 번역이 활발하였고 공동체적 이념이 강렬했던 만큼, 이 시대에는 외설 스캔들에 휘말렸던 이 작가에 대한 관심을 갖기 어려웠던 것이다.

로렌스에 대한 논의는, 해방 직후 남북한 단정 수립 이후 냉전 체제가 확립되어가던 49년이 되어서야 서서히 시작된다. 1949년은 번역사에서 해방기 다양했던 이념적 스펙트럼이 점차 냉전 체제, 반공 이데올로기로 단일화되어 가던 기점이었다.<sup>34)</sup> 『문예』에 실린 석동수의 「D.H. 로렌스의 생활과 문학」은 흥미위주인 소개 차원의 글이고 주목할 만한 글은 「버트런트 러셀씨에게 보낸 D.H. 로렌스씨의 편지」(『신천지』4권3호, 1949.3.)이다. 이 글은 함께 반전운동에 동의했던 러셀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우리는 나는 오로지 정신면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실제생활에 있어서도 확고한 자유기반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지금 글월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의 생활을 계량하기 위하여 금전이라는 척도를 추켜들 것이 아니라 새로운 척도를 준비하지 아니하면 안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경제적인 문제에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경제적 주장이란 끝 끝내 실제적 생활의 한갓 수단에만 그쳐야 할 것입니다. 국가에는 반드시 혁명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공업을 비롯한 \*신, 토지의 국유화를 일제히 단행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sup>35)</sup>

「빈자가 아니라 부자를 기초로 골중이 아니라 궁지에 뿌리박고 희생이 아니라 모든 욕망을 이루어가면서 천국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 이를 충족시키는 것을 근본으로 하는 그러한 사회가 바로 그가 희구하던 사회였던 것이

34) 이에 대한 내용은 박지영, 「해방기 지식 장(場)의 재편과 "번역"의 정치학」, 『大東文化研究』 68, 2009 참조.)

35) 「버트런트 러셀씨에게 보낸 D.H. 로렌스씨의 편지」, 『신천지』 4권3호, 1949.3.

다. 그러나 그것은 소수자의 귀족사회로서 소수자의 무의식의 심연으로부터 성장한 초개성아를 파악하여 순수생명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이 특권을 갖게된 소수자만의 사회건설이 기성문명사회에 있어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로렌스는 곧 깨닫고 말했다.<sup>36)</sup>

대개 로렌스 관련 텍스트가 외설 재판 스캔들이나 이미 유부녀였던 부인과의 연애, 그리고 독일인 스파이로 몰렸던 상황 등에 관한 생애사적 서술인 데 비해, 이 글은 그의 반전(反戰) 사상, 그리고 근대 체제 자체를 부정했던 근본주의자였던 좌파적 성향을 드러낸 보기 드문 글이다. 이 글이 초점화시켜 소개하는 것은 사유재산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의 개혁적 성향이다. 이러한 점은 반전평화주의자였던 러셀과 공유하면서 격렬한 정치 성향을 지녔던 작가의 중요한 면모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같은 시기에 번역된 두 번째 인용한 글도 로렌스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논점을 제고한다. 이 글은 광부의 아들이 이 문명사에 대결하고자 무엇을 무기로 들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로렌스는 이성중심주의, 계급, 자본주의 문명이 가져온 인간성의 황폐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시적 본능의 세계, 즉 “소수자의 무의식의 심연으로부터 성장한 초개성아를 파악하여 순수생명활동을 하는 것”을 그 대안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현재 진행 중인 자본주의 근대 문명 사회 전반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태도에서 나온 것으로 아니키한 면이 강하다. 그리고 그는 문학 활동을 자신의 이러한 정치적 신념을 펼치는 데 하나의 방편으로 삼았다. 그는 작가이기도 했지만, 그 시대 자본주의, 파시즘과 싸우고자 했던 반전운동가이기도 했던 것이다. 앞서 소개한 대로, 이러한 점은 로렌스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점이다. 그런데 로렌스 번역의 궤적 속에서 이러한 점이 부각된 것은 거의 70년대 중후반 이후<sup>37)</sup>이며 그 이전에는 이 시기 해

36) 이한직, 「D.H. 로렌스의 생애-그의 서한집을 중심으로」, 『신천지』 4-10, 1949.10.

37) 예를 들면 이 시기에는 앞서 언급한 영어영문학회 편, 『로렌스』, 민음사, 1979 외에도 정중화, 「D·H·로렌스의性文學受難:豫言의文學과구질서의저항」, 『문학사상』,

방 직후, 잠깐 동안일 뿐이었다.

1950년대 이후에는 로렌스 텍스트 번역이나 소개,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찾아보기 힘들다. 대신 1950년대부터는 작가나 텍스트 소개 차원을 넘어, 텍스트가 차츰 번역되기 시작한다.<sup>38)</sup> 이 시기는 1951년 일본에서 『채털리부인의 연인』 외설 재판이 시작된 직후로 그만큼 이 텍스트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을 시기이다. 반면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서 일본 출간 서적에 대한 단속이 시행된 시기였다.<sup>39)</sup>

1955년 이한직에 의해서 번역된 로렌스의 『사랑스러운 여인』 해설에서는 향후 로렌스가 어떠한 구도 하에 소개될 것인가를 추측하게 한다. 앞서 인용한 글과 같은 필자의 글이지만, 이 글은 「해설」이라는 특성상, 앞서 인용된 글보다 정밀성이 떨어진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데이비드 하벨 로렌스」의 성가는 다만 「차타레이 부인의 사랑」을 쓴 작가로서 알려져 있는 정도에 불과하나, 그의 사후 근 30년이 되려하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작가만큼 각종의 반\* 의 회오리 가운데 놓여온 작가도 드물다. 도학자류의 비평가들은 그를 가리켜, 음담패설의 작가로서 \*\*하러 하였으나, 한편 그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를 하나의 「예언자」로서 숭배까지 하였던 것이다.<sup>40)</sup>

이 글은 로렌스의 세계가 양가적인 방식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첫째는 수많은 텍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문학사상사, 1974.6. 로렌스, 김태언 역, 「한주정뱅이 아들의 출생」, 『문학사상』 35, 문학사상사, 1975.8. 등 비교적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글들이 등장한다.

38) 로렌스의 텍스트 중 처음 번역 소개된 것은 단편 「太陽 sun」(『백광』2호에 1937. 2)이다. 식민지 시기 대표적인 로렌스 논자였던 김영석이 번역한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번역된 소설이 바로 『차타레이 부인의 사랑』(조규동 역, 세종출판사, 1952)으로 이 텍스트는 한국전쟁 와중에서 출판되었다. 김정매, 앞의 글 참조.

39) 「日書總團東亞強」(일서적단속강화) 關係當局會合(관계당국회합), 『동아일보』, 1952.11.07.

40) D. H. 로렌스, 「해설」, 『사랑스러운 여인』, 청수사, 1955.



『채털리부인의 연인』의 작가로서만 알려져 있고, 그 이유도 이 텍스트와 외설 재판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음담패설”의 작가로 알려져 있다는 점, 둘째는 오히려 그런 점이 숭배되면서 그를 하나의 「예언자」로서 추종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양가적인 방식은 그가 외설 재판을 받을 때, 검사측과 변호인측의 의견이기도 했고, 서구에서도 통용되는 이원적 인식이기도 하다.

일찍이 무삭제본의 출간이 가능해진 1960년대 이후 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던 것에 비해 적국으로 규정되었던 일제 말기를 거쳐, 탈식민 과정을 거치면서 영문학 연구가 시작되었던 우리의 경우는, 텍스트나 작가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보다는 미디어를 통해 접한 외설 재판 관련 소문에 의해 로렌스에 대한 인식이 규정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예언자로서 추종되는 후자의 방식으로는 수용되기 어려웠다.

그리고 1970년대<sup>41)</sup>부터 로렌스는 상당 부분 번역이 이루어지고 연구서까지 출간되는 등, 본격적으로 학문적 연구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당시 로렌스는 주로 그의 생명사상, 성에 대한 관념 등을 주요 키워드로 사용하여 다뤄진다.

『채털리부인의 연인』 속 인물들은 잃어버린 낙원의 회복을 어디까지나 성을 통한 삶의 추구에서 찾아보려고 몸부림친다. 근대문명의 퇴폐의 근원은 남녀의 완전한 성관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데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보고 이 양성의 완전한 결합을 내세운 나머지 대담불직한 성묘사를 한 까닭에 호색본 취급을 받고 세계에 물의를 일으킨 『채털리부인의 연인』이 과연 외설이나 예술이냐는 나라마다 또 읽어본 개개인에 따라 각기 그 판단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를 어려울 것 같다.<sup>42)</sup>

41) 김정매의 연구에 의하면 75년을 기점으로 로렌스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79년에는 로렌스에 관한 단행본 연구집이 발간된다. 특히 로렌스 전공자인 백낙청이나 김동선, 정중화, 이재우 등의 출현은 향후 작가 로렌스에 관한 총체적인 연구의 시발점이 된다. 김정매, 앞의 책, 10-12쪽.

42) 한태석, 『홀러간 만인의 사조 베스트셀러 (21) 로렌스 채털리부인의 사랑』, 『경향

이 구절은 로렌스의 성에 대한 인식이 근대문명의 부패와 대척적인 의미에서 다루어진다는 점을 알려준다. 근대문명의 퇴폐의 원인이 인간과 인간의 결합, 즉 “남녀의 완전한 성관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데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보고”, 이를 극복하는 길만이 인간성을 구원한다는 논리이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는 봉건성이나 자본주의라는 근대 체제의 전면적인 부정이라는 근본 원칙은 사라진 단순논리가 된다. 여기에는 앞서 소개한 대로 주인공 콘스틴스가 한때 페이비언주의자였던 인식적 특수성, 과감히 자기의 계급적 특권을 버릴 수 있는 진보적 주체성을 지닌 여성이라는 점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를 볼 때 『채털리부인의 연인』의 주인공 콘스틴스의 욕망은 정작 제대로 부각되지 못한 것이다.

대신 미디어 매체 등을 통한 『채털리부인의 연인』 재판 사건이 풍문으로 이미지화되기 시작한다. 다음은 일본 『채털리부인의 연인』 재판 당시 검사의 선고 내용을 전한 기사이다.

(유부녀 코니는) 자기 집안에서 산지기로 교양의 정도도 뛰어나지 못하고 사회인으로서도 세련되어 있지 않은 차라리 야성적이고 수치를 분간 못하는 메라즈를 발견하자, 불시에 만나게 된 것을 기회삼아 서로의 인격적 이해라든지 인간성의 존엄에 관해선 조금도 반성비판의 겨를이 없이, 전혀 동물적인 욕정의 충격에 빠져 이내 이와 맹목적으로 야합 불륜을 거듭하던 중 점차로 남녀 결합의 성적감응최고조의 유열을 얻는데 있다고 깨닫고 인간의 동경하는 미란 성교의 동태와 그 유열을 창조하는 발정의 성기라고 미신하여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성욕의 실천에 빠져 인간의 수치를 성욕 속에다 말살시켜버린 남녀성교의 자태와 감응향양의 정태외를 노골상세히 묘사하여..와 같은 사건담당검사의 「채털리」관은 처음부터 완전히 외설로 보고서 한 혹평이라고 이에 대한 반론이 일본내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 비등했었다.<sup>43)</sup>

신문』, 1973.7.28.

43) 한태석, 위의 글.

“서로의 인격적 이해라든지 인간성의 존엄에 관해선 조금도 반성비판의 겨를이 없이 동물적인 욕정의 충격에 빠져”있다는 등 이 신문이 당대 일본 검사의 선고문을 그대로 전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기사 내용은 결론적으로는 외설에 대한 인식이 시대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전하기 위해 서였지만, 이 텍스트가 선정적이라는 선입견을 그대로 투사해 내는 효과를 갖는다. 그러면서 이 텍스트는 대중들에게 불온화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점은 늘 로렌스를 리얼리스트로 바라보길 권했던 백낙청<sup>44)</sup>이 최근에 낸 로렌스 번역서에서 “우리나라 일반독자에게는 주로 ‘性文學의 대가(大家)’로 알려져 있으나 로렌스 작품세계의 대부분은 흔히 말하는 ‘性文學’과는 “거리가 멀다”고 굳이 말한 점은 전공자로서 로렌스 문학이 포르노그래피라는 혐의에서 구하려는 시도로 보인다.<sup>45)</sup> 이러한 상황은 역으로 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인식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열 당국은 굳이 움직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 3. 『채털리부인의 연인』 재판 판례의 번역- ‘음란(외설)’ 시비의 젠더/섹슈얼리티/계급 정치

#### 3.1. 외설죄 적용의 정치사회적 토대와 기준

영국에서 벌어진 『채털리부인의 연인』 재판 소식을 전하는 61년 기사에서는 이 재판의 사회적 의미를 분석한 바 있다.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은 영국 검찰이 이 재판 과정에서 주목한 것은 채털리부인 캐릭터였다고 한다.

44) 이러한 입장의 글로는 백낙청, 「로렌스의 소설관」; 「소설 무지개와 근대화의 문제」, 『D.H. 로렌스』, 한국영어영문학회, 민음사, 1979. 참조.

45) 백낙청은 “인간의 성적, 육체적 삶에 대한 남다른 관심도 부르조아사회의 기계주의, 관념주의 및 그 다른 일면인 이상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자 대안모색이란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금주의 문학신간』, 『연합신문』, 1991.12.21. (<http://v.media.daum.net/v/19911221115400701?f=o>))

검찰 측은 차마 여성의 올가슴 추구하고 음외한 말을 변호하는 것이 영국의 가정생활을 위협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없었으므로 시종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이 책이 음외한 말투나 간통의 묘사 때문에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불명료한 위치에 머물러 버렸던 것이다. 그리하여 채털리 부인의 소행이 재판받았을 뿐 아니라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 전통적인 영국 가치관도 아울러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것이 웃음겨리를 만들어냈던 것<sup>46)</sup>

이 논평에서는 여성의 성적 욕망을 다루는 일을 음란한 것이라 여기는 것은 결국 그것이 “영국의 가정생활을 위협할 위험성” 때문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여성(특히 부인)의 올가슴 추구를 인정하지 않았던 당대 보수적 세계관과 그것을 인정하고자 했던 자들의 싸움이었던 것을 전한다. 또 이 기사에서는 “검찰측을 대표한 그리피스 존스가” 이 텍스트를 “여공이나 가정주부와 하녀”라는 주체들에게 읽혀지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고 전한다.<sup>47)</sup> 즉 이 재판은 검열, 섹슈얼리티, 문학의 적합성과 한계,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사회의 계급 갈등까지, 모든 공공연한 문제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무대에 올릴 수 있는 틀을 제공한 셈이다.<sup>48)</sup>

46) 「영국사회와 성문제」, 『동아일보』, 1961.2.12.

47) 위의 글.

48) 호가트에 의하면, 이 재판은 1959년 상정된 음란물 출판에 관한 법(소위 “첸킨스 법”)의 시험대였다. 이 법은 1950년대 후반 외설물에 대한 몇몇 재판이 진행되었고, 제도 없는 지나친 관대함이 사회전체를 위험 수위에 올려놓았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었던 검찰의 조바심이 만들어낸 사건이기도 했다. 한편 작가협회는 음란물 출판이라는 현행법으로 순수 문학 행위에 가해지는 위협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에 분개하여 문학계 저명인사들의 힘을 빌어 단체 산하 분과를 만들고 이 법률이 완화되는 방안을 모색하여 법원과 싸워간다. 이 재판은 그런 의미에서 통제의 강도를 유지하려는 국가기관과 여기에 균열을 내려는 작가들의 노력이 서로 충돌하면서 합의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돌출한 사건인 것이다. 그만큼 이 재판은 양자간의 철저한 기획 하에 진행되었고 재판은 신문과 라디오의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재판장은 마이론 판사였다. 변호인단은 제럴드 가드너(나중에 상원

그러나 당대 이 재판 과정을 생생히 전하면서도, 한국의 신문에서는, 이 상황의 정치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다. 다만 여성의 성적 타락이 보수적인 영국 사회를 뒤흔드는 중대한 탈선 행위라는 사실만은 강조한다. 일본 재판을 전달하는 기사에도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 벌어진 일인지에 대한 정치적 분석과 논평은 존재하지 않았다.

일본 재판을 이끌었던 법안을 기초로 한 우리나라의 외설 규제 법안은 형법 243조(음화 등의 반포 등), 즉 “음란한 문서, 도서,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up>49)</sup>, 형법 제244조 (“음화제조 등) 제 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란 조항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법안은 외설 관련 재판은 물론, 「분지」 필화 사건 등 정치적인 텍스트의 불온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도 작동한다. 남정현의 「분지」 사건 재판 중에도 검사가 변호인 측 증인으로 등장한 이어령이 이 텍스트가 “예술성이 매우 높다”는 논거를 “차타레부인의 연인이 예술성에 있어서는 극찬을 받으면서도 그 내용이 외설적이라는 이유로 음란문서로 법의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일본에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검사의 기소 의견을 반박한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sup>50)</sup>

물론 이 재판은 외설죄에 대한 반박의 논거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반

---

의원이 됨), 제레미 허친슨(나중에 상원의원이 됨) 리처드 뒤칸이 맡았다. 검찰 측은 국가제1고등판사인 멀빈 그리피스 존스가 맡았다. 펄컨북 출판사의 변호인단은 전문가, 변호에 동의한 300여명의 인물과 접촉했다. 결국 35명의 전문가가 법정에서 불려왔고, 같은 수의 인원은 대기 상태에 있었으며, 그것보다 많은 사람이 지지의 서신을 보내왔고, 그들 중 대부분은 언젠든 기꺼이 법정에 설 용의가 있다고 대답했다. 리처드 호가트, 앞의 책, 156쪽.

49) 권명아, 앞의 책, 293쪽.

50) 이봉범은 이를 내용주의에 입각한 문학텍스트 불온성 검열이라고 칭한다. 외설성 여부는 형식주의에 주로 기반한다고 밝혔다. 이봉범, 「불온과 외설 -1960년대 문학예술의 존재방식」, 『泮矯語文研究』 36, 반교어문학회, 2014 참조.

노』 사건 직후, 불문학자 양원달은 “D.H. 로렌스의 채털리부인의 애인을 주의깊게 정성껏 읽은 사람이라면...(중략)..이 책을, 그리고 그 몇 장면을 음란 혹은 외설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적어도 예술을 해독하는 사람, 정서의 순수성을 해독하는 사람으로서는 없다”는 논거로 외설죄를 반박한다. 이처럼 <『채털리부인의 연인』 재판>은 외설죄 성립에 관한 논리의 주요 논거로 영국 판례의 경우는 반박의 논리로, 일본의 판례는 불온성을 규정하는 주체들에 의해 활용되고 있었다.

지금까지 수행된 이 시기 검열 연구에 의하면 1960-70년대 검열장에서 벌어진 검열의 행태는 정권의 의지에 따라 그 때 그 때 편의적으로 수행된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65년 일어난 남정현의 「분지」 사건은 그 내용보다도 북한 조선로동당 기관지 『조국통일』에 실렸다는 점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1970년 일어난 「오적」 필화 사건 역시 이 텍스트가 신민당 기관지에 실려서, 『대화』 필화 사건 역시 임중빈, 윤재식, 윤희두, 김상현이 모두 박정희와 정적이었던 김대중과 연관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김지하의 「비어」 필화 사건은 이 텍스트가 실린 매체가 당대 정권에 저항적이었던 『창조』라는 천주교 매체였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반공법 관련 필화 사건들은 모두 검열 당국이 무엇을 목표로 검열 정치를 수행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sup>51)</sup>

특히 1960년대를 지나 1970년대에 이르러서 「자유실천문인협의회」 등 피검열자들의 집단적 행동이 조직화되면서 검열자와 피검열자 사이의 전선은 좀 더 팽팽해진다. 문학 검열에 있어서도 1970년대는 검열전선이 가장 치열하고 역동적으로 작동한 때이다.<sup>52)</sup>

51) 피검열자들은 모두 북한, 신민당, 김대중, 천주교(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일군의) 등 박정희 정권과 적대적 관련이 있었던 대상들이라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경순, 「70년대 문학검열의 작동방식과 문학의 두 얼굴」, 『한국문학연구』 49, 동국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15, 270-272쪽 참조.

52) 1970년 「오적」 필화를 필두로 1974년 문인간첩단사건이 발생하고 자유실천문인협의회가 결성되며, 1975년 양성우, 이문구, 신경림, 이오덕, 염무웅의 필화 및 중정

여기서 64년부터 가시화된 외설 검열은 잠시 민간자율검열의 관리 하에 있다가 1969년 국가 권력이 이를 회수하면서 좀 더 강도 높게 시행된다.<sup>53)</sup> 이처럼 유독 음란죄 사건<sup>54)</sup>이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반에 몰려 있는 것 역시 1972년 초법적 수단인 10월 유신을 단행할 정도로 급박하게 느낀 정권의 위기의식과 연관된 것으로, 이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 문인간첩단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벌어진 일이다. 신문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김수영의 산문 「원죄」가 음란의 혐의를 받고 전체 삭제된 사건 역시 소소하게 60년대 중후반 풍속 검열 체제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보여 준다.<sup>55)</sup> 음란죄 사건들은 반공법 위반 등 공안 사건과 동시에 진행되면서, 1970년대 초반 당대 정권의 권력 강화 의도에 의해 구성된 것이다. 『반노』 사건의 경우도 1969년 9월 삼선개헌을 바로 코앞에 둔 6월에 벌어진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일종의 검열을 통한 사회 통제의 전초 작업이었던 셈이다.

사상검열이 피통치자의 사상적 논리를 관장한다면 ‘도덕(국민윤리)’이란 기치 아래 실시하는 풍속 검열은 개별자의 비이성적 영역까지 관장하는 보다 치밀한 영혼 통치술<sup>56)</sup>인 것이다. 권명아에 의하면 식민지 시대

---

연행, 1976년 박양호와 1977년 양성우 필화 등 70년대 내내 문학과 검열은 검열자와 피검열자 사이에 선명한 전선을 형성했다. 이는 단정수립으로 검열전선이 붕괴되어버린 해방기나 전선자체가 흐릿해졌던 50년대, 6·3 학생운동 시기 집중적인 충돌로 모순을 축적했던 60년대와는 다른, 70년대 문학검열만의 특성이다. 임경순, 앞의 글, 259쪽.

53)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봉범, 「불온과 외설-1960년대 문학예술의 존재방식」, 『洋矯語文研究』 36, 반교어문학회, 2014.

54) 이러한 과정에서 수행된 풍속 검열에 속하는 음란죄 사건은 1967년 영화 「춘몽」 사건, 1970년 고야 나체화 사건은 고야의 그림 「나체의 마하」를 복사 제작하여 성냥갑 속에 넣어 시판한 사건이다. 1971년 수기 「동경의 밤 25시」 사건, 1973년 박승훈의 「서울의 밤-남대문에서 워커힐까지」와 「영년구명과 뱀의 대화」 사건, 73년 염재만의 『반노』 사건 등이다. 송광준, 앞의 책, 185-198쪽에서 정리.

55) 박지영, 「자본, 노동, 성(性)-‘불온’을 넘어, 「반시론」의 반어, 『상허학보』 40, 상허학회, 2014.

56) 풍속 통제는 생활 방식과 취향에 대한 통제를 넘어 정신과 육체, 즉 삶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인 것이다. 권명아, 앞의 책, 31, 37쪽; 임유경, 「불가능한 명랑, 그 슬

부터 시작된 풍기문란에 관한 풍속 통제는 국민화(정확하게는 비국민화)와 연계되는 통치술이다. 음란함, 풍기문란의 통제는 법제를 통해서 테두리 내에 속하는 국민과 ‘문제적 집단’ 또는 ‘가치가 없는 삶’으로 규정하는 ‘음란한 비국민’을 창출해 낸다.<sup>57)</sup>

그런데 검열자들의 시각에서 ‘음란한 비국민’이라는 범주에 『채털리부인의 연인』을 읽는 독자들은 들어가지 않았던 것일까? 지금까지의 검열 연구가 말해 주듯, 한국 전쟁 직후 냉전 체제 하에서 미처 피검열자들이 검열 전선을 형성할 여력이 없었던 1950년대<sup>58)</sup>, 풍속 검열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본격화되었던 1960년대 중반 이후 1970년대 초반, 어느 시대에도 이 텍스트가 음란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은, 그 작가 로렌스가 적국이 아닌 우방이라 칭할 수 있는 영국작가라는 것. 그리고 번역자나 출판사가 그들의 적과 관련이 적다는 점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리처드 호가트는 『채털리부인의 연인』 재판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것은 이 텍스트를 외설 문서로 보고자 했던 영국 검찰과 상원 의원 등 상류층의 위기의식이라고 한다. 이들은 이 텍스트에서 보여준 콘스턴스의 욕망을 인정하기보다 그녀를 자신의 사회 계급을 배반한 여자로, 멜러즈를 그녀를 발판 삼아 신분 상승하려는 인간으로 단정짓는 것을 자신들의 임무로 생각했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성적인 묘사보다는 노동자들이나 애용하는 “fuck”이라는 음란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더 큰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이다.<sup>59)</sup> 결국 이들은 귀족 여성 콘

품의 기원 - 1960년대 안수길론, 『현대문학의 연구』 49,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205쪽 참조.

57) 권명아, 앞의 책, 285쪽 참조.

58) 이 시기에는 풍속검열 역시 피검열자의 별다른 반발 없이 통고되는 식이었다. 대표적인 예가 “그 내용의 대부분이 국민도의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편집”이라는 의미로 시행한 「야담과 실화」의 폐간처분이다. (「야담과 실화」의 폐간처분은 과연 타당한 조치일까, 『경향신문』, 1958.12.04.)

59) 로렌스는 이 단어를 “자유롭게 하고 정화시켜 앵글로 색슨어의 다른 단어들처럼 진정한 의미로 사용되게 하려는 경건한 의도”에서 사용하였지만, 그 의도는 성공하지 못하고 정작 노동자들에게는 성적인 의미보다는 그냥 단순히 욕으로만 다가



스턴스의 욕망보다는 이를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남성들의 시선을 더 의식했던 것이다. 이러한 우려와 상황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한다면 무리일까?

해방 이후 특히 1950년대 통치자들에게 ‘부녀자’는 주로 사치 풍조, 허영, 춤바람 등을 유발하는 주요 집단으로 간주되었다. 학생층의 경우 연령에 따라 통제의 성격이나 유형이 구별되었다면, 여성들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차이에 따라 통제의 성격이나 유형이 구별되었다. 즉 ‘유한계급 부인’들의 경우에는 주로 사치와 허영이 문제시되어서 카바레 출입이나 비밀 모임, 성적인 문란 행위 등을 주된 문제로 부각시켰다. 가정의례준칙 같은 것으로써 ‘건전한 부녀자의 덕목’ 따위를 계몽하려는 것은 통제 시도의 연장이었다. 또 경제적으로 하층에 속하는 이른바 불우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생계형 풍기문란’이 문제 요인으로 지적되곤 했다.<sup>60)</sup>

이러한 관념이 얼마나 강건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사건 역시 정비석의 「자유부인」 필화 사건이기도 하다. “성욕을 부추기는 소설은 결코 문학이 될 수 없으며 민족문화의 권위를 모욕하는 ‘문화의 적’이요, 문학의 파괴자요, 중공군 50만 명에 해당하는 적’에 불과하다”는 황산덕의 표현을 가능하게 했던 이 사건의 배경은 이 텍스트에, “북괴의 사주로 남한의 부패상을 살살이 파헤치는 이적 소설”이라는 독설까지 안겨주었다.<sup>61)</sup> 이러한 점은 탈선한 유한부인의 도덕적인 반성이라는 주제와 상관없이 그저 유한부인의 탈선을 다뤘다는 점 그 자체가 불온스러운 일이라는 당대 남성들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여성단체까지 나서서 이 텍스트의 작가를 비난하는 상황은 1970년대가 되어서도 그리 달라지지 않는다.

여성학의 발흥기이기도 했던 1970년대 중반, 보봐르의 「위기의 여자」는 최고의 베스트셀러였다. 로렌스의 『채털리부인의 연인』은 베스트셀러

---

왔을 뿐이라고 한다. (위의 글 참조)

60) 권명아, 앞의 책, 327쪽.

6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삼웅, 「소설 자유부인 필화 논쟁」, 『한국필화사』, 동광, 1987, 27-44쪽 참조.

가 되지는 못하였으나 “해마다 꾸준히 나가는 책(양서)” 중 하나였다<sup>62)</sup>. 그런데 『위기의 여자』의 베스트셀러화 역시 부부 중심의 핵가족제도를 위협하는 간통에 대한 공포가 결합된 결과였다. 당대 지식인 여성들은 모니끄의 존재론적 자각보다는 남편의 간통에 고통받는 상황에 더 큰 연민과 공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당대 지식인 여성들조차 개별자들 간의 관계가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 가부장제적 사회 통념과 핵가족 정책이라는 당대 통치 구조에 의한 것이다.<sup>63)</sup>

이러한 점이 내면화된 상황에, 더구나 시일이 지난 상황에서는 굳이 『채털리부인의 연인』에 법적 제재를 가하여 괜한 정치적 쟁점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채털리부인의 연인』은 이미 ‘명작’이라는 후광을 안고 있는 텍스트였기 때문이다. 신문소설이나 잘 알려지지 않은 『반노』와 같은 텍스트가 음란죄로 검열의 대상이 된 것은 이들 텍스트가 아직 ‘명작’이라는 후광이 씌워지지 않은 것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검열 당국이 일본을 제외하고는 번역 텍스트에 둔 감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후발 자본주의국가로서 근대화에 대한 열망이 강렬했던 상황에서 서구 문화 유입에 대한 선망은 매우 큰 것이었다. 번역은 그 방도였기 때문에 그 텍스트에 대한 검열 태도는 느슨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니스커트, 장발 단속 등을 통해 서구 퇴폐문화의 범람에는 우려를 표하면서도<sup>64)</sup>, 검열자는 이미 정전화된 서구문화텍스트에는 매우 관대했다. 더 나아가

62) 『讀書週間(독서주간) 書店街散策(서점가산책)』, 『동아일보』, 1963.09.27.

63) 이에 대해서는 보봐르 텍스트의 번역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이미 밝힌 바이다. 박지영, 『‘위기의 여자들 : 보부아르 『위기의 여자』 번역과 1970년대 젠더/섹슈얼리티』, 『여성문학연구』 39,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참조.

64) 당대 생활상과 문화통치 정책에 대해서는 김경일,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미니스커트』, 창비, 2016; 김행선,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문화정책과 문화통제』, 선인, 2012 외 다수.

당대 통치자들에게 서양의 고전은 소위 국민의 교양을 위해 오히려 권장하는 텍스트였다.<sup>65)</sup> 사실 「오적」 사건 이후에 김지하에게 부여된 ‘투사’라는 이미지를 생각<sup>66)</sup>한다면 검열자들에게는 이 사건으로 감당해야 할 후폭풍의 문제도 역시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였으리라고 본다.

이후 풍속 검열의 대상은 문학에서 대중문화 전반으로 이관되면서 문학 관련 음란죄 처벌 사건은 점차 줄어든다. 경범죄처벌법(1973년) 등 생활 규범의 확립과 더불어 대중 문화 전반에 대한 검열의 칼끝이 날카로워진 것은 60년대말, 1970년대 초가 그 기점이다.

검열자들은 고전 텍스트 등 순수문학보다는 대중 소설을 포함한 대중문화 전반이 그들이 통치해야 할 대다수의 대중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68년 검열자의 논리대로라면 매우 음란하기 이를 데 없는 기사들로 넘쳐 나는 『선데이 서울』의 등장이 의미하는 바는 이들의 성에 대한 통치 전략이 일방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통제와 개방의 이중적 전략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말해 준다.

일반 대중들조차 「선데이서울」에 등장하는 기사들을 건전한 ‘성적 도의 관념’에 합당한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실제로 “1970년 정부의 윤리위원회는 음란성의 기준을 들고 검열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고는 한다. 하지만, 화보뿐만 아니라 기사들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즉 낮 시간의 주부, 고고클럽을 드나드는 여대생과 여공 그리고 전문직이랄 수 있는 마담, 호스티스에게까지” 미친 관음증적 시선을, “통제 권력은 대중의 선택으로 적당한 선에서 존중해 주었다.” 「선데이서울」은 검열자가 허용할 수 있는 음란한 표현의 최대치<sup>67)</sup>를 담지한, 당대 정권의 성정치의 공간<sup>68)</sup>이

65) 당대 미국(서양)중심주의와 민족주의와 길항하는 위로부터의 독자장려운동의 주요 대상은 서양고전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천정환, 「교양의 재구성, 대중성의 재구성 : 박정희 군사독재 시대의 ‘교양’과 자유교양운동」, 『한국현대문학연구』 35, 한국현대문학회, 2011 참조.

66)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경순, 앞의 글 참조.

67) 잡지 「선데이서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성환, 「1970 박정희부터 선데이서울까

었다.

이처럼 이러한 기사들이 검열에 저촉되지 않았던 것은 검열자들이 당대 주체들의 성적 일탈을 규제하지만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박정희 정권이 추구하는 근면한 노동하는 주체들에게도 오락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검열자들이 규제하지 않았던 성적 일탈의 주체들은 누구였을까? 그것은 관음증적 시선을 즐기는 노동하는 주체, 성인 남성들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인식이 검열자는 물론 당대 검열자들과 싸우는 변호인단 혹은 문학계의 입장에서도 암묵적으로 공유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은 이후 음란죄에 관련된 이후 재판의 풍경에서 드러난다. 음란성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것은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 형법 음란죄에서 명시된 ‘음란’의 개념은 참으로 모호하다는 것이 이 사건들을 변호한 변호인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는 앞서 기사에서 말한 대로 ‘시대마다 다르다’는 인식까지 더해진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공공의 성적 수치심·도의심’ 또는 ‘성적 도의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 누가 규정하는가라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도 많은 논란이 된 바 있다. 심지어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판사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웃지 못할 말도 나온다. 검열자이든 피검열자이든 음란함을 규제하는 것도 남성들이지만, 그런 음란함이 허용되는 대상도 남성들이었다.

### 3.2. ‘외설(음란)’ 시비의 젠더/섹슈얼리티/계급 정치: 『반노』 사건의 경우

우리의 경우는 물론이고 영국과 일본 등에서 음란(외설)죄 재판의 핵심 쟁점은 ‘외설이나 예술이냐’는 해묵은 논제였다. 이 텍스트를 외설로

지-(4) 선데이서울과 유신시대의 대중, 『경향신문』, 2013.08.2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23211509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232115095))

68) 임중수, 『『선데이서울』에 나타난 여성, 섹슈얼리티 그리고 1970년대』, 『한국문학연구』 44,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3.

볼 것인가, 예술로 볼 것인가라는 주장으로 검사와 변호사가 충돌했다. 이러한 주장의 논거는 이 텍스트에 나온 일부 표현의 외설성을 전체와의 관련 하에 판단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와 연관된 문제였다. 사실 이러한 점은 이미 영국과 일본의 판례에서도 부각된 문제였는데, 특히 영국법원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법안인 젠킨스 법안의 특징과 연관된 것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젠킨스 법안은 영국의 작가협회가 음란물 출판이라는 현행법으로 순수 문학 행위에 가해지는 위협에 맞서 법적 제안을 국회에 상정해 얻어 낸 ‘음란물 출판에 관한 법’(1959)이다. 『채털리부인의 연인』 재판은 이 법안의 중요한 시험대였다. 여기서 핵심은 음란물을 판단할 때에는 그 책의 전체에서 문제되는 부분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 학문과 예술 분야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의 출판은 보장되어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이 판결에 충분히 참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69)</sup>

그 결과 영국은 재판에서 변호인측, 즉 작가협회측이 승소했다. 그리고 일본은 물론 우리의 음란물 관련 재판에서도 이와 비슷한 쟁점이 재판장에서 펼쳐진다. 한국판 ‘『채털리부인의 연인』 재판’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1970년대 대표 음란죄 관련 재판인 『반노』 사건만 보아도 이러한 점이 잘 드러난다.

“변태적인 남녀가 동거하며 성교하는 장면을 묘사함에 있어서...직접적으로 성에 관한 노골적이며 구체적인 부분을 묘사하여 통상인으로 하여금 성욕을 자극 흥분시키기에 족한 내용이 게재된.. 음란문서를 제조하였다”(반노 사건 당시 검사의 기소 이유 골자232)

첫째, 문예작품은 어느 한 구절만을 따로 떼어서 음란성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작품 전체와 관련시켜서 따져야 한다. 성적 묘사에 의한 자극은 작품의 예술성 및 사상성에 의하여 순화되며, 그 자극도 승화 소멸되는 것

69) 리처드 호가트, 위의 글, 154-155쪽.

이 보통이다.

둘째, 영미의 판례를 따르더라도 본건 소설 『반노』는 음란문서로 처벌할 수 없다. 비록 부분적으로 음란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예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한 이것은 음란만을 위한 음란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설 『반노』는 ‘나’라는 주인공이 인간에 내재하는 성의 노예성에 항거하여 새로운 인간의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을 그린 것이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하여 드높은 휴머니즘을 추구하되 하나의 인간발견 과정을 통해서 추구하고 구현하려 한 것이다. 이 소설이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 함은 인수길 씨의 법정증언을 들어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정춘용 변호사 변론<sup>70)</sup>

이 구절을 보면 결국 이 재판의 논점 역시 『채털리부인의 연인』 재판 당시의 모습을 거의 유사하게 재현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현의 자유인가, 공중의 도덕적 이익인가? 음란성의 판단 기준이 문제적인 부분에 있는가, 그 부분을 전체와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할 것인가, 예술성 있는 작품인가? 단지 외설적인 작품인가,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는가라는 쟁점에서 그러하다. 그런데 이 재판에서 작가는 『채털리부인의 연인』처럼 예술성의 가치를 인정받아 1975년 기적적으로 무죄판결을 받는다.

이는 사실 1997년 장정일의 『내게 거짓말을 해봐』나 1992년 마광수의 『즐거운 사라』 사건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데 비추어 본다면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검사들도 인정한 ‘예술성’의 정체이다. 여기서 풍기문란과 관련된 논의의 범주를 음란물이라는 생산물의 성격<sup>71)</sup> (“예술이나 외설이나”라는 논란이 전형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것처럼)이나 이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로 환언하면 풍기문란이라는 문제들이 놓인 지점을 자칫 간과하게 될 위험이 있다<sup>71)</sup>는 지적이 떠오른다.

사실 현재적 관점에서 소설 『반노』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 텍스트가 재판에 회부되어 작가가 수년 동안 괴로워할 만한 것이었나는 다소

70) 엄재만, 「문학작품과 법정서비」, 『반노(무삭제판)』 중 부록, 글벗사, 1995, 234-235쪽

71) 권명아, 앞의 책, 283쪽.

의아해진다. 변호인단의 “성의 노예성에 항거하여 새로운 인간의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을 그린 것”이라는 표현대로 이 텍스트는 성적인 욕망이 강한 두 남녀가 성행위에 집착적인 행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것에 대한 염증을 느끼며 이후 인간다운 삶을 추구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텍스트의 특징은 모든 행위의 주도권이 여성에게 가 있었고, 남성은, 성적인 행동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여성에게 모든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과정에서 큰 고통을 느낀다. 이러한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 소설은 남성 화자를 통해서 이야기가 전달되는 서사 구조를 갖는다. 자연스럽게, 행위의 주도권이 여성에게 있다는 점조차 남성 화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질 뿐, 정작 이 소설에서 여성 주체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이러한 구도를 통해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하여 드높은 휴머니즘을 추구하되 하나의 인간발견 과정을 통해 성에 대한 올바른 윤리관념을 제시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 텍스트가 소위 음란의 혐의를 받고 있는 성적인 행위 및 인식에서 『채털리부인의 연인』과 주요한 측면에서 대조적이라는 점이다. 우선 이 두 텍스트 모두 여성이 성적인 욕망의 주체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지만, 채털리부인의 경우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도 충만한 합일감과 함께 오히려 인간 본연의 행복을 찾아간다는 내용이지만, 『반노』의 경우는 성적인 행위를 통해 주인공인 남성이 고통을 받고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라 믿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형상화하기 위해 『반노』는 시종일관 남녀 간의 가학적인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서 서술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작가가 말한 휴머니즘을 추구하는 것은 남성 주체일 뿐, 이 서사에서 여성 주인공의 욕망은 대상화되고 더 나아가 악마화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텍스트는 오히려 보수적인, 작가가 말한 대로, 당대 윤리 관념에서 그리 크게 벗어난 주체의식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 텍스트에 선고된 무죄판정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결과로, 결과적으로 검사측은 이 시도가 얼

마나 명분없는 것인가를 스스로 증명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비록 이겼다고는 하지만, 이 명분없는 싸움 과정에서 작가는 더 이상 재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피투성이가 되었다. 그리고 이 기적적인 성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조차 이 텍스트에서 소외된 여성 주체의 존엄성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진보적으로 승리했다고 자축할 수 있었으나 여러 측면에서 이 싸움의 승자는 보수적인 성윤리, 검열자들이었다. 이러한 점은 90년대 이후 음란죄 사건이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의 보수성은 한국에서 채털리부인의 욕망이 제대로 번역되지 못했던 상황과도 연관된 것이다. 앞서 증명했듯, 『채털리부인의 연인』은 불결한 여성의 불륜이야기이거나, 유토피아로서의 ‘성적인 세계’라는 의미로만, 남성들의 성적 환타지를 반영한 서사로서만 소개되었기 때문에 굳이 통제를 통해서 논란을 일으킬 필요를 못느낀 것이다. 또 가부장제적 검열 체제 하 “풍기문란자”를 넘어 “풍기문란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들<sup>72)</sup>로 규정된 부녀자들의 욕망은 이미 사회저변에서, 여성들의 의식세계에서 억압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검열과의 싸움에서도 무시된 것이다. 『반노』가 예술성을 인정받아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이 서사가 (여성의) 성적 욕망을 죄악시하는 이러한 사회적 논리에 어느 정도 일치하는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 문학의 순수문학/통속문학이라는 장르적 위계화와 연관된, 복합적인 문제도 개입한다. 중요한 이유는 앞서 말한 대로, 『채털리부인의 연인』은 주요 독자가 대부분이 박정희 시대 ‘자유교양운동’의 대상이었던 남성인 대학생<sup>73)</sup>이었기 때문이다. 전해린, 신경숙 등 지식인 여성들이 고백한 문학소녀 시절 독서 대상 텍스트에서 『채털리부인의 연인』

72) 권명아, 앞의 책 참조.

73) 당대 베스트셀러는 주로 번역된 고전 텍스트였고 독자대상은 대학생들이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용희, 「1960-70년대 베스트셀러 현상과 대학생의 독서문화」, 『한국학연구』 41, 2016; 이 운동의 남성중심성에 대해서는 천정환, 앞의 글 참조.



은 찾아보기 힘들다. 게다가 이 텍스트는 유부녀의 사랑이라는 불륜 코드가 있었기 때문에 설사 접했다 하더라도 가부장제적 상황에서, 여성들은 이 텍스트에 공명했다고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다.

『반노』 등 대중소설, 대중문화 콘텐츠가 풍속 검열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그들이 이념적으로 통제해야 할 지식인들이 아니라 그들이 규율해야 할 풍기문란자들, 「채털리부인」 재판에서 검사들이 주요 검열 대상으로 삼았던 청소년, 노동하는 주체인 중/하층계급 남성, 여성들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채털리부인의 연인』 번역과 그 재판 판례의 번역 현황에는 해방 이후 음란죄로 인한 풍속 검열 정치에 개발 독재 하 당대 통치자들의 위계화된 계급, 젠더/섹슈얼리티인식, 가부장제 남성 중심주의적 핵가족 제도 등 전근대적인 사회 인식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 4. 결론

지금까지 『채털리부인의 연인』 텍스트와 음란죄 재판의 대표적 판례를 제공한 이 텍스트를 대상으로 수행된 서구 및 일본의 음란죄 재판 판례의 번역을 통해서 해방 이후 70년대까지 수행된 불온/외설 담론의 젠더/섹슈얼리티 정치학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서구, 특히 일본에서 음란죄로 번역자와 출판인이 유죄판결을 받았던 예와 달리, 우리의 경우는 이 텍스트가 출판 금지 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데 문제의식을 착안했다. 그 과정에서 이러한 상황은 당대 검열 상황이 진보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냉전 체제 하 경직된 정치 검열 상황, 서구 고전 텍스트를 읽히려는 당국의 독서 정책에서 나온 결과였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오히려 이 텍스트가 작가의 의도대로 제대로 수용되지 않고, 이미 유부녀의 불륜을 미화한 음란한 외설서로 풍문으로 인식된 까닭이기도 하다. 여성의 욕망이 허용되지 않았던 가부장제적 상황에서는 이 텍스트가 제대로 번역되기 힘들었다. 더 나아가 남성의 노동력을 규율해야 했던 개발 독재 하에서, 음란죄 관련

검열 정책은 이 텍스트를 읽는 지식인들보다, 대중소설이나 영화, 대중문화를 선호하는 중하층 계급의 남성들의 성적 욕망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 결과 『선테이서울』의 존재가 보여주는 대로, 무작정 통제하기보다 적절하게 허용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노동력을 규율해 내려 한다.

그 안에서 여성들의 성적 욕망은 철저히 억압되고 무시되었다. 『반노』 사건 등 음란죄 처벌에 관한 싸움에서도 이들의 변호인들은 예술적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검열자들의 논리에 사라진 여성들의 성적 주체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채털리부인의 연인』에서 콘스턴스의 욕망이 제대로 가치 있게 수용되지 못했던 것은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검열자에게 반드시 금지시켜야 할 검열의 대상도 되지 못한 것이다. 이 모두 오랫동안 에로티시즘에 관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한국의 가부장제적이고 보수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 참고문헌

### 1. 자료

- 김영석, 「영국신심리주의문학소고(2)」, 『동아일보』, 1935.7.23.  
 김영석, 「영국 신심리주의문학 소고: D.H. 로렌스」, 『동아일보』, 35.7.31.-8.2.  
 김영석, 「로렌스의 작품과 사상-10주년기에 제하여」, 『조광』, 1940.  
 영어영문학회 편, 『로렌스』, 민음사, 1979.  
 염재만, 『반노(무삭제판)』, 글벗사, 1995.  
 이한직, 「D.H. 로렌스의 생애-그의 서한집을 중심으로」, 『신천지』 4권10호, 1949.10.  
 이한직, 「해설」, D. H. 로렌스, 『사랑스러운 여인』, 청수사, 1955.  
 정중화, 「D·H·로렌스의性文學受難:豫言의文學과구질서의저항」, 『문학사상』,

1974.6.

- 최재서, 「D.H. 로렌스론-그 생애와 예술」, 『조선일보』, 1935.4.7.-12.  
최정익, 「D.H. 로렌스의 ‘성과 자의식」, 『단층』1, 1937.4.  
한혹구, 「로렌스의 생애와 사상」, 『동아일보』, 1935.3.14.-15.  
「버트런트 러셀씨에게 보낸 D.H. 로렌스씨의 편지」, 『신천지』 4권3호, 1949.3.  
D.H. 로렌스, 김영석 역, 단편 「太陽 sun」, 『백광』 2, 1937.2.  
D.H. 로렌스, 유혜영 역, 『채털리 부인의 연인』, 책읽는수요일, 2016.  
D.H. 로렌스, 김병철 역, 『성과 문학』, 정음사, 1976.  
D.H. 로렌스, 김태언 역, 「한주정뱅이 아들의 출생」, 『문학사상』, 35, 75.8.  
日本國會圖書館 홈페이지.([www.ndl.go.jp](http://www.ndl.go.jp))

## 2. 단행본

- 장정일 외, 『장정일, 화두, 혹은 코드』, 행복한 책읽기, 2001, 1-376쪽.  
권명아, 『음란과 혁명, 풍기문란의 계보와 정념의 정치학』, 책세상, 2013,  
1-412쪽.  
김경일,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미니스커트』, 창  
비, 2016, 1-316쪽.  
김삼웅, 『한국필화사』, 동광, 1987, 27-44쪽.  
김정매, 「연도별 논저 목록-번역」, 『한국에서의 로렌스 수용-서지학적 연구  
1930-1987』, 한신문화사, 1989, 1-12쪽.  
김행선,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문화정책과 문화통제』, 선인, 2012, 1-242쪽.  
한국영어영문학회 편, 『D.H. 로렌스』, 민음사, 1979.  
한승현, 『권력과 필화』, 문학동네, 2013, 95쪽.  
  
조셉 브리스토투, 『섹슈얼리티』, 이연정·공선희 역, 한나래, 2000.  
피에르 비투 편, 『채털리-Lady Chatterley』, 박혜숙 역, 이룸, 2003, 19쪽, 31쪽  
33쪽, 44쪽, 63쪽, 160쪽.  
케이트 밀렛, 『성 정치학』, 김전유경 역, 이후, 2009, 474-475쪽, 477쪽.

3. 논문

- 강미숙, 「D.H. 로렌스와 페미니즘-페미니즘 비평사의 변전을 중심으로」, 『D.H. 로렌스 연구』 11, 한국로렌스학회, 2003, 189-205쪽.
- 강정석, 「로렌스와 페미니즘」, 『영어영문학21』 10, 21세기영어영문학회, 1995, 80-104쪽.
- 박미숙, 「음란물의 판단기준과 젠더」, 『젠더법학』 3-1, 젠더법학회, 2011, 91-122쪽.
- 박지영, 「해방기 지식 장(場)의 재편과 "번역"의 정치학」, 『大東文化研究』, 68, 대동문화연구회, 2009, 423-480쪽.
- 박지영, 「자본, 노동, 성(性)-'불온'을 넘어, 「반시론」의 반어」, 『상허학보』 40, 상허학회, 2014, 277-337쪽.
- 박지영, 「'위기'의 여자들 : 보부아르 「위기'의 여자」 번역과 1970년대 젠더/섹슈얼리티」, 『여성문학연구』 39,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337-373쪽.
- 송광준, 「음란물의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75, 1-235쪽.
- 오우리, 「1930년대 후반 영국 신심리주의(新心理主義)의 사랑 담론 수용 연구 -최정익(崔正翊)의 「D. H. 로렌스의 '성(性)과 자의식(自意識)」을 중심으로」, 『比較文學』 67, 비교문학회, 2015, 145-179쪽.
- 이경민, 「욕망과 금기의 이중주, 에로사진과 식민지적 검열」, 『황해문화』 58, 2008, 387-398쪽.
- 이봉범, 「1950년대 문화 재편과 검열」, 『한국문학연구』 34, 동국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8, 7-49쪽.
- 이봉범, 「불온과 외설-1960년대 문학예술의 존재방식」, 『泮矯語文研究』 36, 반교어문학회, 2014, 437-483쪽.
- 이봉범, 「일본, 적대와 연대의 이중주 -1950년대 한국지식인들의 대일인식과 한국문화(학)」, 『현대문학의 연구』 55, 한국문학연구학회, 2015, 103-168쪽.
- 이용희, 「1960-70년대 베스트셀러 현상과 대학생의 독서문화」, 『한국학연구』

41, 2016, 43-76쪽.

이정민, 「한국의 프로이트 이론 수용 양상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16, 1-334쪽.

이혜령, 「식민지 섹슈얼리티와 검열 -"도색(桃色)"과 "적색", 두 가지 레드 문화의 식민지적 정체성」, 『동방학지』 164, 연세대학교학연구원, 2013, 229-257쪽.

임경순, 「70년대 문학검열의 작동방식과 문학의 두 얼굴」, 『한국문학연구』 49,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5, 255-291쪽.

임유경, 「불가능한 명랑, 그 슬픔의 기원 - 1960년대 안수길론」, 『현대문학의 연구』 49,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175-217쪽.

임종수, 「『선데이서울』에 나타난 여성, 섹슈얼리티 그리고 1970년대」, 『한국문학연구』 44,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3, 91-136쪽.

정인선, 「1997년 이후 성표현물 검열논쟁과 여성주의의 딜레마」,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4, 1-78쪽.

조희진, 「음란물(pornography) 규제에 관한 여성주의적 접근과 비판」, 『사법연수원논문집』 3, 2006.

천정환, 「교양의 재구성, 대중성의 재구성 : 박정희 군사독재 시대의 '교양'과 자유교양운동」, 『한국현대문학연구』 35, 한국현대문학회, 2011, 281-315쪽.

奥西, 晃, 「ロレンス小説の終局 : 『チャタレイ夫人の戀人』考」, 大阪女子大學英文學科 編, 『女子大文學. 外國文學篇』 33, 1981.

#### 4. 그 외

「금주의 문학시간」, 『연합신문』, 1991.12.21. (<http://v.media.daum.net/v/19911221115400701?f=o>)

김성환, 「1970 박정희부터 선데이서울까지-(4) 선데이서울과 유신시대의 대중」, 『경향신문』, 2013.08.2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23211509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232115095))

## Abstract

### Translation of Lady Chatterley's Lover (judicial precedent) and Gender/Sexuality/Class Politics (1945-1979)

Park, Ji-Young

This study examines Lady Chatterley's Lover as a representative judicial precedent in obscenity sin trials, with a focus on translations of judicial precedents for obscenity sin in Western countries and Japa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gender/sexuality/class politics surrounding discourses on indecency/obscenity from post-Korean liberation until the Seventies. In the process, it was revealed that, unlike the convictions of translators and publishers over obscenity sin in the West and Japan in particula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id not ban the novel from being published, which awakened my critical mind. Such measures were taken not because the then-censorship situation was progressive, but rather because the political censorship situation was associated with the ongoing Cold War system and the authorities' policy was to allow the people to read classic Western texts. In addition, the text was not properly translated but was rumored to be an obscene book that beautifies the description of a married woman's love affair, giving authorities no reason to crack down on the publication of the novel.

Judicial precedents over the obscenity sin of this text in the West and Japan significantly influenced South Korea's awareness

of obscenity sin and its actual trials, as well. As a result, the novel *The Betrayer Slave* (Banno) is regarded as an obscenity sin-related text, even though the novel was acquitted of the sin later. However, as the desires of Constance in *Lady Chatterley's Lover* were translated neither properly nor rightly, trials in which massive court battles were staged against censorship of *The Betrayer Slave* (Banno) did not respect but rather ignored female sexual subjectivity. All this happened in post-colonized conservative South Korea, where productive discussions of erotism had not been had for many years. In addition, complicatedly involved therein are the rulers' hierarchic class, perceptions of gender/sexuality, and pre-modern social awareness, such as regarding patriotic male-centered values.

Key words : gender, sexuality, class, politics, translation, *Lady Chatterley's Lover*, *Lady Chatterley*, D. H. Lawrence, Constance, woman, desire, sexual subjectivity, censorship, indecency, obscenity, obscenity sin, pornography, erotism, patriarchy, dictatorship putting development first, nuclear family system

■ 본 논문은 2017년 11월 17일에 접수되어 2017년 11월 27일부터 12월 22일까지 소정의 심사  
사를 거쳐 2017년 12월 2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